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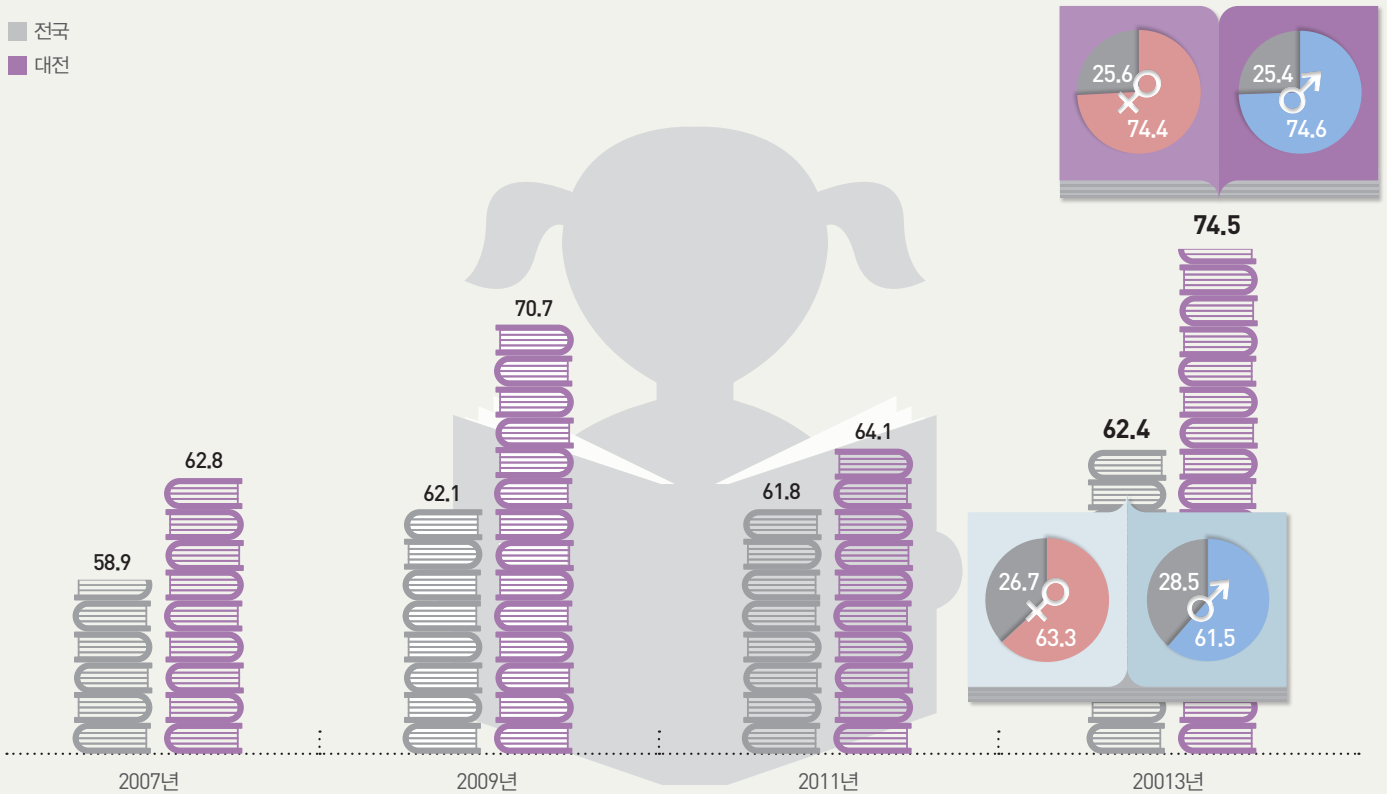


발행처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유재일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5. 10. 31.

독서의 계절, 책 읽고 계신가요?

■ 전국
■ 대전



* 단위: %

*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문화와 여가), 각년도

* 2009년 이전자료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독서인구 비율이며, 2011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 중 독서인구 비율로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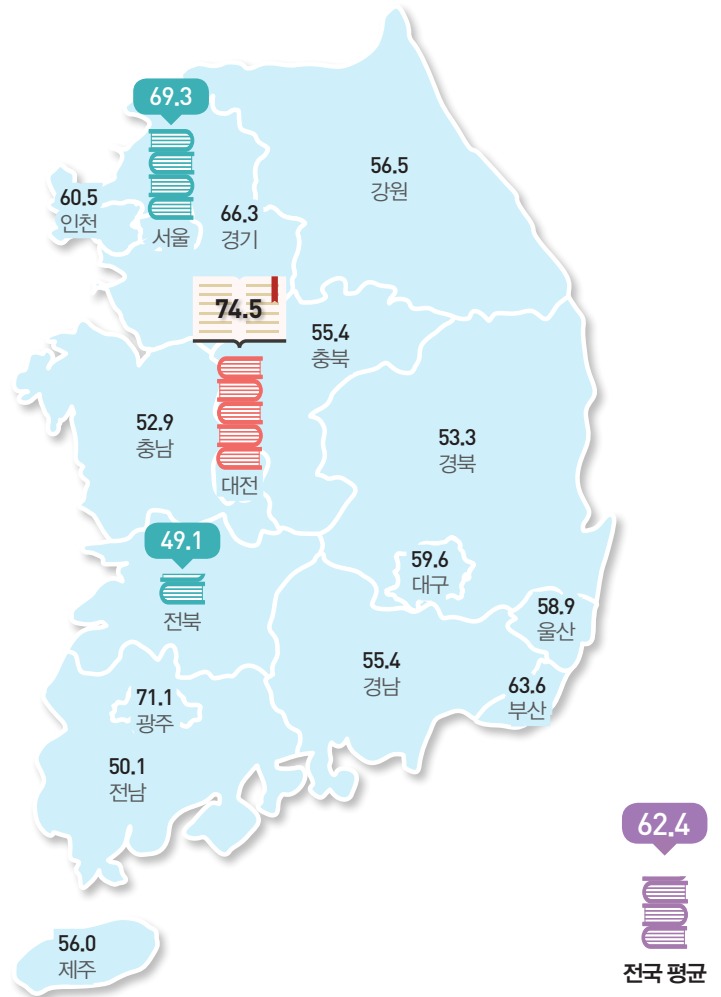
01 독서인구 비율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의 13세 이상 인구 중 독서인구 비율은 74.5%로 전국 평균(62.4%)보다 12.1%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62.8%)부터 2009년(70.7%)까지 증가하다 2011년(64.1%) 감소했으나 2013년 74.5%로 10.4% 상승했다. 이와 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시의 독서인구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대전시의 여성 독서인구 비율은 74.4%, 남성 독서인구 비율은 74.6%로 비슷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평균(여성 63.3%, 남성 61.5%)보다 높게 나타났다.



02 시·도별 독서인구 비율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시·도별 독서인구(13세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시(74.5%)는 16개 시·도 중 책을 읽는 시민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71.1%, 서울특별시 69.3%, 경기도 66.3%, 부산광역시 63.6% 순으로 전국평균(62.4%)보다 높았으며, 전라북도는 49.1%로 독서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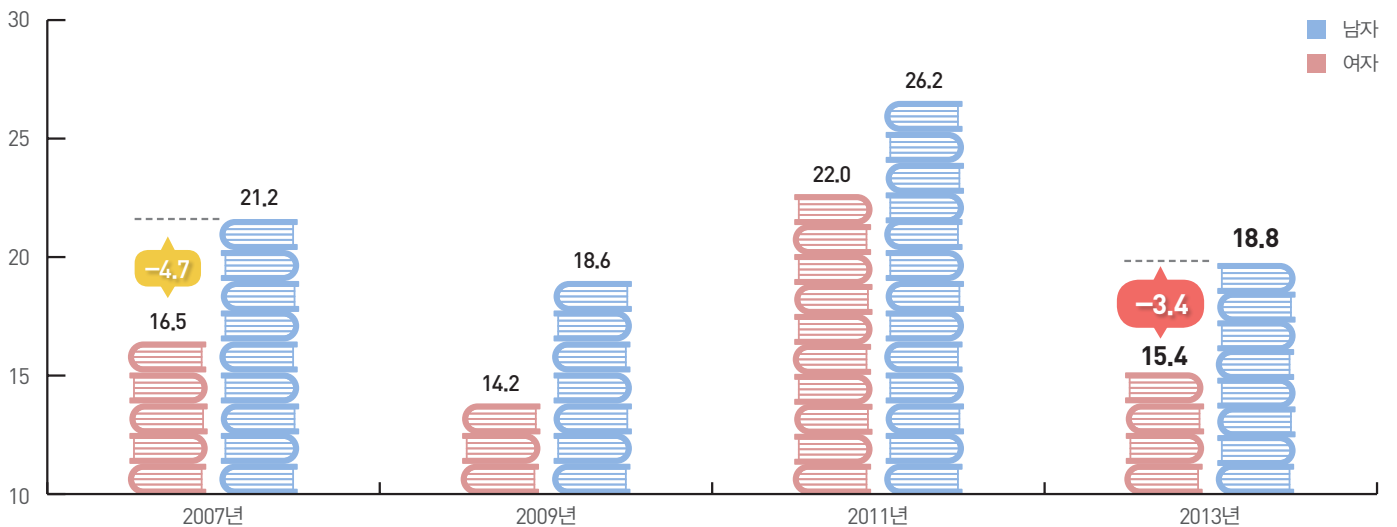


* 단위: %

*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문화와 여가), 2013년

03 1인당 평균 독서권수

대전시의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7년 여성은 16.5권, 남성은 21.2권의 책을 읽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4.7권의 책을 더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여성 14.2권, 남성 18.6권) 약간 하락했으나 2011년 여성 22.0권, 남성 26.2권으로 대폭 상승했다. 2013년에는 여성 15.4권, 남성 18.8권으로 다시 줄어들었으나 성별 독서권수의 차이는 3.4권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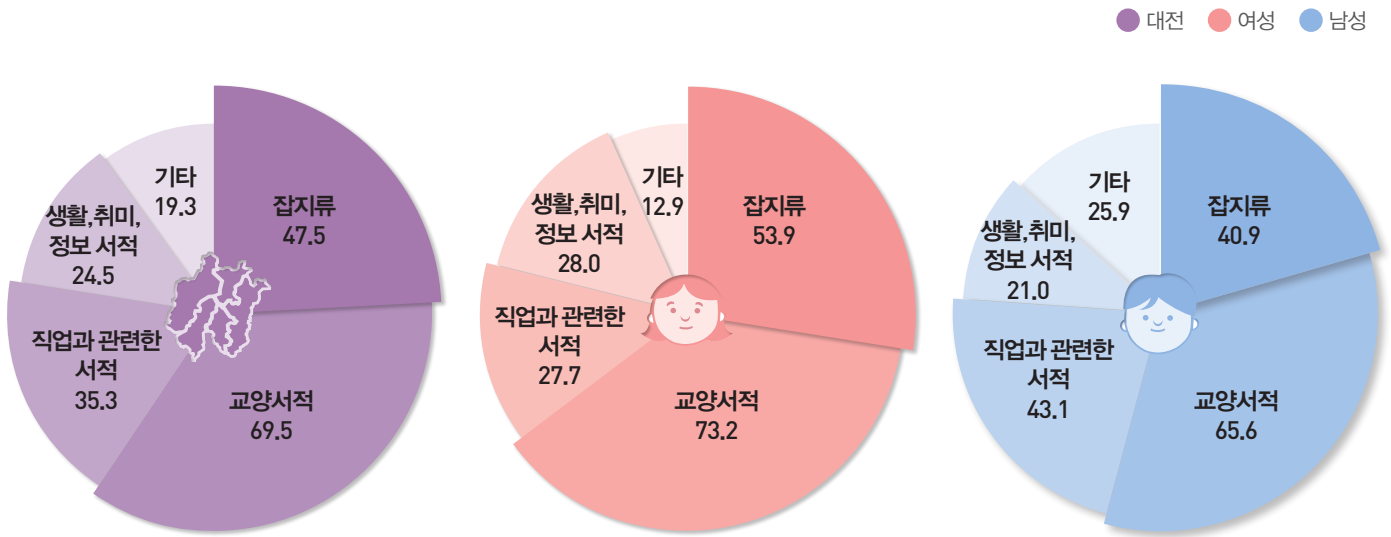


* 단위: 권

*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문화와 여가), 각년도

04 서적종류별 독서 비율

2013년 사회조사의 서적종류별 독서 비율을 보면, 대전시민들은 '교양서적'(69.5%)을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잡지류' 47.5%, '직업과 관련한 서적' 35.3%, '생활, 취미, 정보 서적' 24.5% 순으로 높은 독서 비율을 보였다. '교양서적'에 이어 남성은 '직업과 관련한 서적'(43.1%)을 많이 읽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은 '잡지류'(53.9%)를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 : %
* 자료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문화와 여가), 2013년
* 중복응답 문항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중간 워크숍 개최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10월 8일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모니터단은 교육 수료 후 동구 및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시범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중앙시장, 중리행복길 벼룩시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가족오토캠핑장이며, 현장 방문 및 이용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10월 23일 중간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모니터단은 전문가들과 모니터링 방향,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 워크숍은 11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포럼 개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류 활성화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29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간 연계'라는 주제로,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 소장이 '여성친화도시 콘텐츠 발굴: 안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토론자들과 함께 발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